



흡연 땀 치과 치료비 3배 든다

비흡연자보다 풍치 발생·진행 속도 빨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치과 진료비가 3배 이상 나온다는 결과가 나왔다.

화이트치과 이한나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잇몸질환 및 임플란트, 치아 미백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더 많은 내원 횟수와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20대 환자 중 충치 관련 질환보다는 잇몸질환이 많았으며, 흡연 환자의 경우 풍치 발생뿐 아니라 진행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잇몸질환에 걸릴 확률이 4~5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00명 중 흡연자는 62명, 비흡연자는 38명으로 치과를 내원 하는 환자는 흡연자의 비율이 더 많았다. 흡연 환자 중 45명은 5년 이상 된 장기 흡연자로 이 중 50%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침착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흡연자의 경우 치과를 방문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잇몸 질환(풍치)과 치아 변색에 따른 미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흡연자의 경우 치아교정이나 충치, 미용을 위한 미백이나 치아성형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원장은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는 동안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이 치아이고 담배를 피우는 동안 잇몸이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잇몸 및 치아에 쉽게 손상이 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흡연은 치아를 지저분하게 변색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잇몸질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비흡연자에 비해 10배나 높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04. 7. 9)

간접흡연 폐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

간접흡연의 폐해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2배나 더 심각한 것으로 연구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BBC 인터넷 판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조지 대학병원

과 로열프리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결과를 인용, 간접흡연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병 위험성을 50~60%나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는 간접흡연이 심장병 발병 위험을 25~30%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흡연자 4천 792명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심장병 발병 위험이 이전 조사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영국 전역 18개 타운에서 40~59세의 중년 남자들을 대상으로 20여 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간접흡연 상태에 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혈중 코티닌(니코틴의 부산물) 수치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간접흡연에 더 많이 노출되면 코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이것이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과소평가 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세인트 조지 대학병원의 피터 힌켄 교수는 “간접흡연의 진정한 폐해는 지금까지 배우자 흡연 문제에 치중돼 과소평가 된 측면이 있다. 간접흡연 문제는 직장과 공공장소 등 전반적인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힌켄 교수는 “간접흡연의 영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심장재단의 팀 보우커 박사는 “이 연구처럼 영국에서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거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는 없다”고 말하고 “증거가 명백한 이상 영국 정부는 지체없이 비흡연자를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사회회 소속 의사들은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직장에서 흡연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004. 7. 1)

비만 청소년 80%가 생활습관병 위험

비만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고(高)지혈증 등 각종 생활습관병 위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의대 백병원 비만센터 강재현·유선미 교수





팀은 20일 "서울과 5대 광역시 등 전국 14개 중학교 학생 3,6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만 유병률과 합병증'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17%)이 비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만 남학생은 22.3%, 비만 여학생은 10.7%로, 남학생이 2배 이상이 많았다.

비만으로 진단된 중학생 총 587명 중 76.5%인 449명은 지방간 등으로 인한 간기능 이상,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고혈당 등 한 가지 이상의 비만 관련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지니고 있는 중학생도 36.3%(213명)에 달했다. 비만 청소년의 합병증 여부에 대해 전국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기능 수치인 AST와 ALT의 경우, 비만 학생 그룹이 정상 체중 그룹보다 각각 10배, 13배나 높았으며, 고지혈증 위험도도 4배 높았다. 고요산혈증 위험은 비만 학생 그룹에서 2배 높았고, 고혈당 위험도는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력을 보면, 부모 모두가 비만인 경우, 자녀의 비만 위험도가 2.92배 높았다. 특히 아버지(1.59배)보다 어머니(2.21배)가 자녀의 비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소아비만은 대개 성인비만으로 발전하기 쉬운데, 이는 아동기와 사춘기에 신체적 급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체지방 세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강재현 교수는 "10~13세에 시작된 과체중 및 비만의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된다"며 "청소년 시기의 비만을 단순히 성장과정으로 오인하여 간과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 시기 비만도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 7. 20)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

사단법인 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회장 신현민)와 고려대 구로병원(원장 이석현)은 고가의 치료비와 장기 투병기간으로 인해 치료 기회를 놓치기 쉬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조기 예방과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협조 협력을 체결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후원기관인 로또 공익재단으로부터 연간 1억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받

아 교육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친다.

문의 02-818-6932

(조선일보 2004. 7. 6)

채소, 여성 치매 예방 효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일부 야채가 나이 든 여성의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브리검 부인병원의 강재희 연구원은 평짓과(科)의 푸른 잎이 많은 야채를 더 많이 먹은 60대 여성은 70대 들어 기억력, 언어 능력, 주의력 등 전반적인 두뇌활동의 퇴화 증세가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야채들에는 시금치, 브로콜리 외에도 꽃양배추, 왕고들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남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 연구원은 말했다. 강 연구원과 동료들은 장기 건강 조사에 참여 중인 1만 3천 388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채소의 건강효과를 시험했다.

연구진은 간호사들의 나이가 60대였을 때 10년간에 걸친 식습관을 조사했고, 70대 들어 2년 간격으로 두 차례 두뇌활동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 간호사들은 단어 목록 기억하기, 1분간 동물 이름 말하기 등 각종 두뇌능력 평가 시험에서 뚜렷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퇴화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푸른 잎이 많은 야채를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먹은 여성들은 가장 적게 먹은 여성들보다 두뇌능력 평가 시험에서 하강 기미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 잎이 많은 야채들을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먹은 "여성들은 인식(認識)능력의 저하 측면에서 볼 때 1~2세 더 젊은것이 확실하다"고 강 연구원은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19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알츠하이머병과 관련 장애'라는 국제학술회의에 맞춰 발표됐다.

(연합뉴스 2004. 7. 20) 72